개혁 '98 : 화학경영을 혁신하자! …

석유화학산업과 구조조정

5대 재벌들이 계열사를 50개 안팎에서 30-40% 줄이고, 1999년말까지 평균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며, 2000년 3월까지 상호지급보증을 완전 해소키로 정부와 합의했다.

5대 재벌들은 IMF 이후 1년 가까이 버티면서 구조조정을 외면해왔지만, 비등하는 국민여론과 국제적인 비난,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강력한 경제구조 조정 의지에 따라 획기적이라 할 수 있는 「재벌 개혁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6-30대 그룹들이 핵심사업을 정리하고 외자도입에 심혈을 기울일 때 5대 재벌들은 막대한 부채를 무기(?)로 「배째라」를 외치면서 혹시나(?)를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고, DJ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와 DJ의 확고한 경제개혁 의지를 확인한 후 어찌할 수 없는 흐름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재벌들의 「개혁방안」 합의에도 불구하고 5대 재벌들은 앞으로도 개혁을 외면하고 방해하는데 골몰할 것이고, 별의별 트집과 이유를 내세워 저항할 것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특히, 구조조정 또는 개혁을 한답시고 금융지원, 세제혜택 등 정부와 국민일반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조건을 한 보따리 들이밀 것이다.

그러나 재벌들이 요구하는 「개혁의 선행조건」은 그들이 70년대 이후 지금까지 줄기차게 입어온 것들이고, 각종 특혜를 바탕으로 문어발식 세력확장을 계속해 왔으며, 그 결과가 IMF라는 「제2의 국치」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다시는 특혜를 바탕으로 구조조정과 개혁을 운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DJ식 경제개혁이 성공하는 열쇠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생각되기 때문이다.

화학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화학산업, 특히 석유화학은 재벌들의 무분별한 과잉투자에 따라 막대한 외자를 끌어들임으로써 외화부족난을 심화시키고, 카르텔을 통해 공정경쟁과 건전경영을 원초적으로 말살시킴으로써 「IMF 국치」를 불러온 주범의 하나로 어느 산업에 못지않게 개혁에 앞장서고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할 업종이다.

그러나 한국 화학산업계는 화학이라는 특수성, 즉 전문가 집단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렵다는 「이질적」 요인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외면하고 있으며, 한화종합화학 및 동양화학, 대상, 그리고 몇몇 중소기업을 제외한다면 뚜렷한 구조조정 노력이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될 정도이다.

그것은 과잉투자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평가하지 않은데 원인이 있고, 현상적인 카르텔 관행을 잘못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두자리수」 머리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석유화학 문제는 현대석유화학과 삼성종합화학이 80년대말 석유화학산업에 신규 진입하면서 「오너」의 무분별한 투자결정이 문제됐었고, 극심한 불황을 이유로 94년 3월30일 이후 「석유화학 카르텔」이라는 불법적인 담합행위를 통해 또다른 과잉투자를 유발함으로써 오늘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결과가 현대와 삼성의 대산 석유화학단지 통합 운운이고, 각각 3조원 안팎에 이르는 부채구조를 보면 그 실상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기계·장치 투자비 1조2000억-1조3000억원에 3조원의 부채를 순수한 경영상의 문제로 인식하기도 어렵거니와 이와 관련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한 통합은 고사하고 외자유치는 실현성이 100%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SK(유공), 대림산업도 각종 특혜를 받으면서 울산과 여천지역의 대표주자로 성장해 왔으나, 관료적 경영과 후진적 보신주의로 오늘의 위기를 불러온 책임이 크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서도 과잉투자를 유발시키고 카르텔을 시행함으로써 건전경영을 방해했던 원인 제공자들은 그 자리를 온존하고 있으며, 오히려 과잉투자와 카르텔 과정의 불법성을 무기로 철밥통 못지않는 여유를 부리고 있는 형국이다.
일부 주모자 및 시행착오자들이 퇴출당한 것은 사실이나 과잉투자와 카르텔을 공모하고 결정했던 중간층 및 단체 간부들이 여전히 건재하는 상황에서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게 돼 있다는 것이다.

석유화학 구조조정이 「결자해지」에서 비롯돼야 하는 이유이다.

<화학저널 1998/12/14>